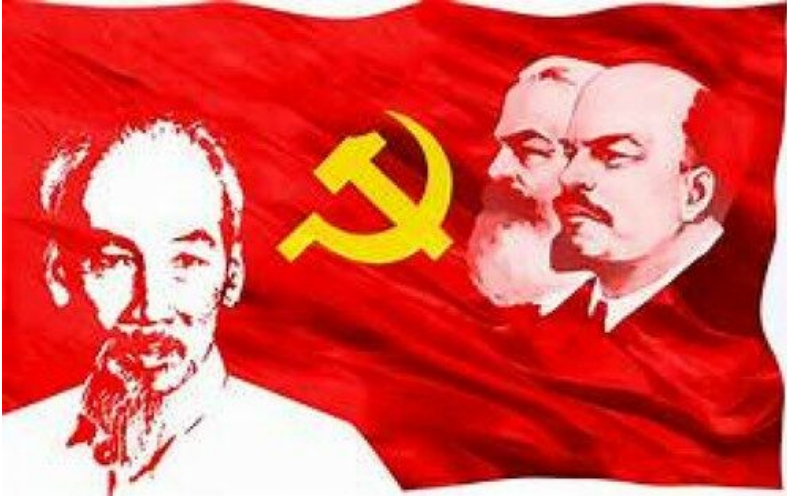


레닌과 식민지 민족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오늘은 위대한 혁명가 레닌 동지의 탄생일입니다. 사실 이 글은 호치민 주석이 젊은 시절 모스크바에 있을 때 쓴 글이지만, 당시 레닌이 아시아 인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려 주는 대목이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레닌 동지 생신에 올립니다.)



“레닌이 죽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아프리카의 비옥한 평야로, 아시아의 푸른 벌판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흑인이나 황인 사이에서 레닌이 누구고 러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무지에 갇혀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무지는 자본주의의 버팀목 중 하나지요. 그렇지만 베트남의 농민들뿐 아니라 다호메이 숲의 사냥꾼들도, 착취 세력을 무너뜨리고 주인이나 식민지 총독 없이도 스스로 나라를 경영하는 민족이 지구 저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나라가 바로 소련이고, 그곳에는 용기 있는 자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사람이 바로 레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중들이 그 나라와 지도자에게 깊은 존경과 열렬한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민족 해방이라는 과업을 수행한 후 타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도 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색인종들이 외부의 침략이나 주재 총독 등, 외세의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백인들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런 인물과 계획이 존재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산당을, 착취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는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레닌이 그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비록 문화적 소양이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고 친절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레닌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닌을 해방자로 간주했습니다. “레닌이 사망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레닌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큼 용기 있고 고결한 인물이 또 나타날까?” 억압받던 식민지인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손실에 크게 상심하며, 모든 민족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코민테른과 당 지부, 식민지에 있는 지부까지,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지도자가 남기고 간 가르침과 교훈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야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요?

레닌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스승이고, 동지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밝게 비춰준 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과업 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1924년 1월 27일

호치민